

이란·이라크 8年戰爭

金 鍾 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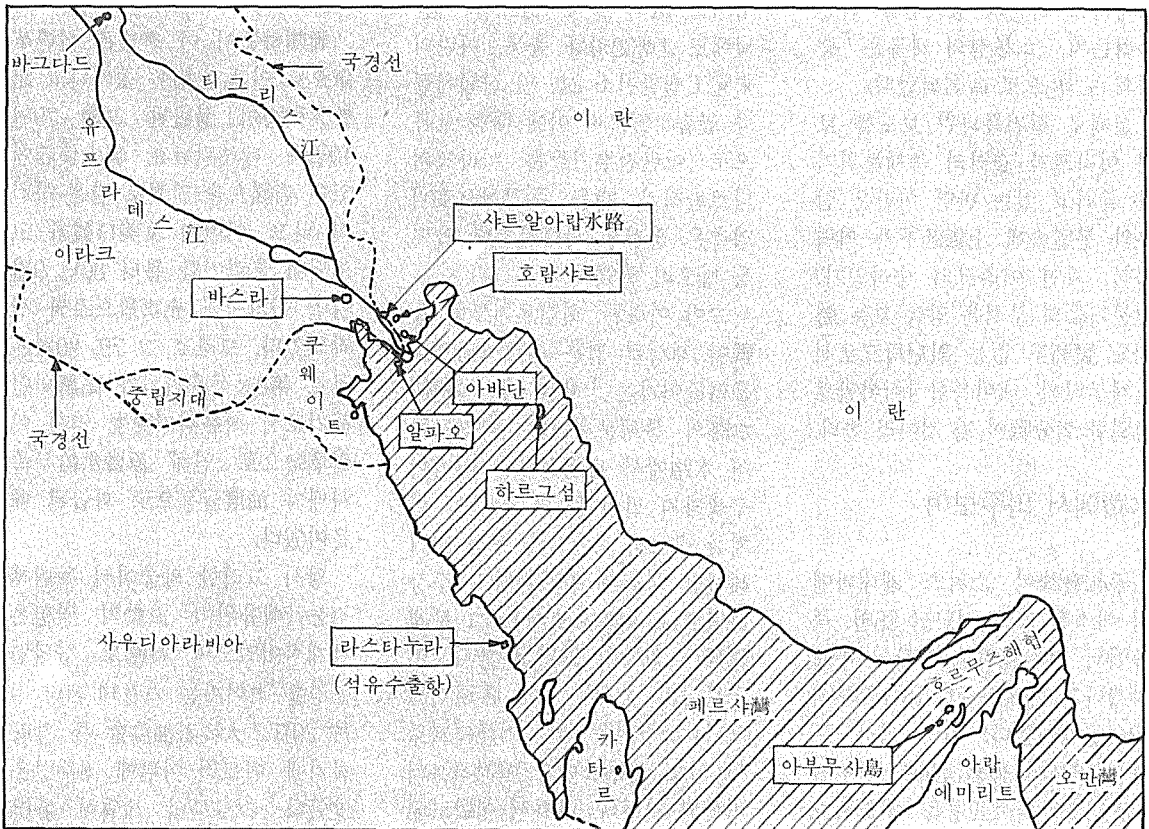
「勝利의 도약」

금년 88년 8월에 이란-이라크 戰爭이 종식되었다.(死傷者 100 만명, 戰費 830億\$) UN의 휴전·평화안을 일단 수락함으로써 문자그대로 “停戰”된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아직 兩國間에는 증오와 戰意가 계속되고 있으며 戰后處理 협상에서의 優位확보를 위해 언제 또 局地的 「한방」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終戰協商이 초반부터 난관을 겪는 것은 어느 外相의 말처럼

오히려 當然之事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란의 정신적지도자 호메이니翁은 목청을 돋우어 외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임진태세를 갖추라. 美國·蘇聯같은 큰 敵이든, 후세인(이라크 大統領)같은 走狗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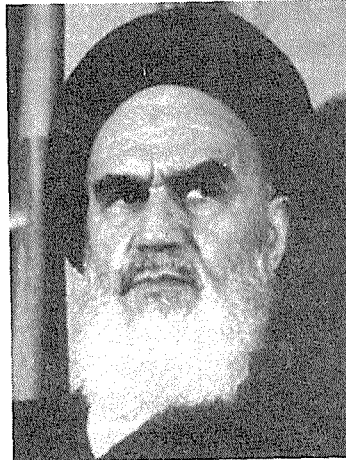
우리의 적들은 이슬람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休戰동의후 호메이니옹의 첫외침이었다.

상대편 대통령을 「이슬람의 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 후세인은 누구 못지 않은 正統이슬람의 가치를 휘두르고 있으니 어쩐 일인가. 이라크는 이번엔 8년전쟁을 기념하여 큰 동상을 건립키로 하였다. 이라크 제2의 도시이며 전투지역의 주요 거점인 바스라市 광장에, 「이란政權의 好戰性을 상징하는」 상어(조스)의 머리를 칼로 찌르는 이라크兵士의 모습을 8미터 크기로, 그 상어는 32미터로 무지하게 큰 상징구조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적개심을 양양하고 아울러 승리감을 확인하려는지, 그 동상의 제목은 「승리의 도약」으로 命名되었다.

실제로 현지특파원 보도를 보면 이라크가 승리의 축세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반면 이란은 압투와 분열속에 士氣低下가 역력하다. 과연 이라크의 승리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양측 모두 勝利도 實利도 없는 일단락으로서 이제부터의 테이블협상이야말로 치열한 名分戰이 될 것이라 한다.

水路에서 마주보며

平和會談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것은 지난달 25일, 즉 유엔의 정전결의를 이란이 수락하겠다고 발표한 7월 18일부터 40여일만이었다. 이미 이라크는 1년여전부터 停戰決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사표명을 하였으며



◇ 이란의 호메이니翁

로 곧장 유엔의 중개로 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바로 停戰發表가 있자마자 그날 이라크는 전투기를 61회 출격시켰으며 이튿날에도 1백32회나 출동, 이란의 未完工핵발전소 2基 및 산업시설을 공습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전투기들은 이라크의 다르반디칸 댐을 폭격함으로써 양측은 정전후 사태진전에 압력을 넣으려 하였다.

그야 여하튼, 회담초기부터 舌戰이 개시된 점은 페르샤灣으로 흘러들어가는 「샤트·알·아랍」水路의 통행문제이다. 이라크는 이水路에서 自國선박을 이란이 수색하지 말아야하며 이란이 설치한 수로의 장애물을 우선 제거해야만 대화가 진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란으로서는 그 문제提起가 합당치 않다고 한다. 이 수로상의 문제는(뒤에 詳述하겠으나) 국경선을 긋는 기본명제로서 당초 전투발단도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로

서는 아예 대화처음부터 爭點을 희석하면서 군사적시위로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인듯 하다.

그러나 양측이 수락하여 협상의 근거가 된 유엔安保理 정전결의에는 「국제적으로 公認된 국경으로의 상호철군」이라는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라크主張은 理論上 불리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전쟁도발責任을 따질 때에도 역시 기반이 튼튼치 못하다. 다만 주변의 GCC아랍국가 여론이 이라크支持 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도 페르샤灣 해상에 石油수송 보호를 위해 군함을 띄워두고 있는 美國이 이란 감정 비슷한 무엇때문에 이라크주장을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周知하듯이 이 전쟁은 이란革命으로 인해 王權이 쫓겨나고 回教共和國이 성립된 그해-79년 10월에 테헤란駐在 美大使館에 있던 美國人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 나고, 이란內 反美口號가 고조되던 혼란기를 틈타 80년 9월 21일 이라크가 先攻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79, 80년은 바로 第2次석유위기가 高調되던 시기로서 석유위기發生 역시 이란革命으로 인해 原油供給부족사태가 油價급등으로 파급된 때 문이었다.

당시 그러한 와중에서 두번째 겪는 석유위기·波動的의 영향은 세계적이었으며 韓國도 상당한 곤경을 겪어가는 가운데 80年 9月 29日 「大韓石油協會」를 창립하기에 이르러 이달에 8주년을 맞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 페르시아灣의 석유기지 하르그島

山川이 변하면서, 격동의 오일쇼크는 이른바 「逆오일쇼크」로 진전되어 油價暴落시절을 겪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이 시點에서 이란-이라크戰爭의 종식은 다시금 양국의 石油增産과급효과로 油價弱勢를 빚어낼 지도 모른다는 局面에 접어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태 추이를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中東事態」의 중요성과 흥미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우리는 또 中東을 보면서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散策에 나서 보고자 한다. 이·이戰은 어떻게 경과하였으며, 이번 종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위협을 혹은 느끼는가. 아랍주의와 시온주의 사이에서 아니 그 한가운데서 中東은 어떠했는가. 아라비아나이트와 이슬람운동은 무슨 얘기이며, 中東의 石油開發과 메이저石油社와의 관계는 그리고 O.A.P.E.C이나 G.C.C의 活動은 어떠한가. 그곳의 영

웅담이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中東散策시리즈를 다루어 볼만하다.

8年戰爭의 배경과 경과

최근 수십년간 外信報道에서 주목을 받던 「中東戰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3가지 사태로 집약된다. 이스라엘建國에 대한 팔레스티나 아랍인의 투쟁에서 비롯된 이집트-이스라엘戰을 근간으로하는 4次에 걸친 中東戰이 그 하나이며, 이와 연장선상에서 팔레스타인 解放戰線(PLO)문제가 비화된 레바논事態(* 82. 6. 6 이스라엘이 레바논侵攻)이 또하나이고 다음하나가 페르시아灣 유조선공격을 포함하는 이란-이라크戰이다. 앞의 두가지는 後述키로 하며 먼저 이란-이라크戰의 경과를 보자.

페르시아灣은, 中東石油수출의 6割가량이 드나드는 곳으로 그곳 수출물량에 대한 자유세계의 석

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 經濟, 安保上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요즘 中學生이라도 알만하다. (* 석유협회에서 전국 중학교 학습참고용으로 배포한 「석유의 이모저모」책자에도 지도까지 설명되었음) 그 페르시아灣 北端으로 흘러드는 시끄러운 江이 샤투·알·아랍(Shatt al-Arab) 水路로서 190km에 달한다. 폭이 좁아서(200~300미터) 수로라고 하나, 실은 古代메소포타미아文明이 발흥된 티그리스江과 유프라테스江이 합쳐서 흘러가는 도도한 江줄기이다.

이 수로를 국경으로 동쪽은 이란, 서쪽은 이라크가 대치하는데, 이란쪽연안에는 이란 제1의 항구 호람샤르가 있고 그보다 河口쪽 아래로 페灣 가까운 곳에 정유시설 및 하역장이 있는 아바단港이 있다. 한편 이라크쪽 연안에는 역시 石油港인 바스라시가 자리 잡고 그로부터 죽 내려오면 水路入口에 석유선적장인 이라크의 알파오(Al Faw)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전략공격요충지 아부 무사島등이 떠 있다.

샤투·알·아랍水路(=샤텔아랍江)에 관한 분쟁은 벌써 400여년전부터 헤게모니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오스만터어키와 페르시아間的 1639년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래, 점령자와 협정자가 바뀌면서 1970年代까지 일곱차례나 조약이 맺어졌으나 外交史에서는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었다. 페르시아·이란은 그 협정의 다섯번을 터어키와,



◇ 혁명에 쫓겨난 팔레비왕

한번은 이라크 植民勢力 이었던 英國과 조인한 것이었으며 실제 주민인 이라크 政府와 직접 체결한 것은 일곱번째가 되는 1975년의 「알지예 國境條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江가운데 국경선이 강폭의 중심선이 아니라 강바닥의 깊은골/계곡선을 따라가는 Talweg (=계곡)原則이 적용된 것이었다. 이는 75년 체결 당시의 판세가 강대국 美國의 지원을 받는 이란(팔레비王)쪽이 우세여서 “탈베그原則”이 이란에 有利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며, 이라크側으로서는 劣勢인 동시에 自國영토내 소수민족인 쿠르드族이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함에 대해 이란이 이를 원조치 않는다는(中斷) 약속을 얻어내는 데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라크는 그 水路에 대한 通行權도 없이 불리한 국경선이 확정된 셈인데, 바로

그 조약을 추진한 외무장관이 79년 7월 신병으로 사임한 바크르 大統領을 이어 신임대통령에 취임한 사담·후세인이었다. 후세인은 취임 14개월만인 80년 9월, 75년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경선을 샨델아랍江 中心線으로 하며 아랍江에서의 自國航行權 취득/호르무즈해협 의 아부무사·큰툼·작은툼 3개 섬의 반환등을 외치며 全面戰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8년간의 攻防은 탱크와 미사일의 陸上血戰에서 발전하여 항공기에 의한 산업시설 파괴 및 석유수송선공격등 戰線없는 산발적 소모전이 그야말로 지루하게 펼쳐졌다. 초기에 우세하던 이라크에 대해 82년 7월에는 이란의 逆侵攻이 감행됨으로써 戰況이 바뀌었다. 이때 소련이 이란에게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국내정치관계로 이란이 83년 5월 共產黨을 타도하게되자 對蘇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자 소련이 이번에는 이라크에게 무기를 판매하였다. 美國도 83년에 對兩國 武器禁輸措置를 하였으나 이라크에 대한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지원은 묵인하였다.

이 전쟁에서 무기무역은 또한 하나의 長期戰原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 개발된 兵器들과 최신전자유도장비들이 시험적으로 경쟁하는 무대가 된 것이다. 이란에게는 北韓도 무기수출을 하였으며 시리아와 리비아가 이란행 공급루트였다.

中共은 연간 20億\$의 무기수출 8할을 이란-이라크에 판매

했으며 이집트도 연간 10億\$ 정도를 中東에 무기수출하였다. 그 이외에도 브라질이 이란-이라크 쌍방에 장갑차 600대 이상을 공급했고 7,000만\$의 개발비를 투입한 고유모델의 고성능 오조리온 탱크 1,200대는 50億\$에 사우디로 수출되어 그 일부가 이라크로 넘겨졌다. 新型兵器로 말하자면 中共이 이란에 수출한 「실크웜」 미사일은 사정거리 50마일로서 페르사灣內 유조선 공격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이라크의 자금지원을 비밀리에 받아들인 이집트는 「콘도르그」의 개발과 함께, 소련제 地對地유도탄 「스커드B」의 사정거리 확장을 성공시켰는 바-이라크는 이집트 武器輸出의 최대고객으로서 연간 6億\$ 정도씩 거래하였다. 이라크는 空軍力도 우세하여 「미그23」과 「미그25」 「미라주」 「F1」機를 포함 作戰用 항공기 630대를 보유함으로써 이번 終戰까지의 善戰에 制空權 확보가 탁월했다. 반면에 이란은 팔레비王 시절에 도입한 「F4」 「F5」機등 舊式航空機 70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陸上戰에서는 兵力이 3對1로 우세한 점을 살려 中盤戰況은 이란이 더 많은 포로를 잡고 더 많이 까부수었으며 주요거점의 점령에도 신속했다.

83년 10월, 유엔은 첫번째 終戰決議案을 내놓았으나 헛일이었다. 84년 2월, 이란이 샨델아랍江 北側上流의 마즈눈群島를 점령하자, 劣勢에 몰린 이라크가 두달후부터 페만내의 석유수송

탱커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에 맞서 이란은 유조선공격에 미사일을 사용하였다. 灣內 유조선被撃은 8년간 400척에 달할 정도였다.(* 최고는 87년의 149척피격) 심지어 이라크는 이란측의 最大貯油및 하역장이 있는 하르그島도 공격함으로써 양측의 석유시설파괴 및 수송방해로 말미암아 그에 따라 한때는 世界油價가 춤추었던 것이다.

전투5년이 지나자 양쪽국민과 군인의 사기저하와 不滿이 높아졌다. 이에 이라크는 85년 休戰을 제의, 3월부터 민간에 대한 포격이 中止되었으나 그것도 協約 9個月后 다시 양국首都에 대한 폭격으로 再發되었다. 86년 들어서는 이란이 공세를 펴 水路河口에 있는 이라크 영토 알파오半島를 장악하여 勝機를 잡은 듯 하였으나 이윽고 美國이 峯灣에 함대를 파견, 87년 7월 21일부터 이라크에 友好的인 쿠웨이트油槽船을 호위하게 되자 힘을 얻은 이라크는 한달후(8. 30) 이란의 하르그島와 유조선에 대한 폭격을 再強化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해 87년부터는 이라크空軍機에 대한 空中給油가 가능케 되어 半徑 600km까지 이란內部 깊숙히 까지 폭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이라크쪽이 우세를 잡은 듯했다. 더우기 이란은 호메이니翁이 88년에 88才로서 간암·신장암을 앓고 있으며 內政도 소란하게 되었다. 이 해야말로 이라크로서는 끝내주는 해가 되기를 빌면서, 88년 2월 首都테헤란 및 主要都市에 미사일공격과 폭

격세례를 시작한 다음, 3월에는 北部분리주의 小數民族인 쿠르드族마을을 이란이 직접지원함을 빌미로 化學武器로 5천여명이나 살해했다. 그 悲運의 北部「하라브자」마을은 7월에 이라크가 완전장악했다.

이에 앞서 河口의 알파오半島는 다시 이라크가 탈환(4月)하였는 바,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서 文字 그대로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속에서 死守하던 이란兵士는 십수만이 戰死하였다. 이렇듯 이란政府를 갈팡질팡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이라크가 계속해서 6월 26일, 지난 84년에 이란에게 빼앗겼던 江上部 마즈눈群島를 악전고투 끝에 드디어 탈환함으로써 이란에 占領당했던 샤텔아랍江 남북국境領土를 모두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戰線에서도 同時大攻擊을 감행, 中部戰線에서 이란의 요충인 메헤란市를 점령함으로써 오히려 이란領內로까지 진격한 상태가 된 것이었다. 결국 이란은 7월 18일에 UN停戰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확실히 決定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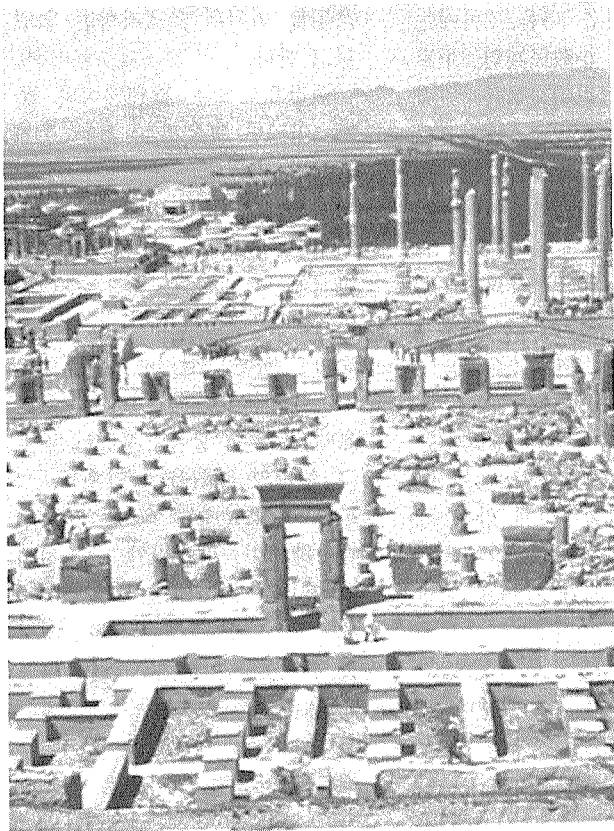
「毒藥을 삼키는 苦痛」

外信에 의하면, 고집쟁이며 독종인 호메이니翁을 설득하여 정전수락을 결정케 한 사람은 國會議長이며 總司令官인 라프산자니/호메이니의 長男인 아마드/이란大統領인 하메네이 등 3인이었으며, 정치적경쟁자인 司祭派 몬타제리 일당이 反對하였으나 群

衆集會 이외의 公式저항은 없었다고 한다.

이란로서는 勝利感이나 榮譽, 아니면 實利라도 있는 종전~휴전이 되지 못하고 더우기 75년 국경조약이 有效하다는 名分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로 쓴잔을 마시게 된 것이다. 禁酒·禁煙家인 호메이니翁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毒藥을 삼키는 苦痛”이라고 신음했다. 그는 이슬람革命理念에 투철한 할아버지로서 平生 그 革命의 擴散을 믿었으며, 그리하여 未久에는 이슬람統合主義~純粹이슬람主義가 승리하며 꼭 해야한다는 宗教의 信念의 化身이었으므로, 그것이 바로 시아파 回教徒의 기치로서 貧困層의 열렬한 支持와 熱狂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마음속 깊이 되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쉬었다가 心身을 가다듬어 다시 해보자는 주장도 위세가 큰 편이다. 따라서, 平和會談 進전내용을 보아가면서 이란內政은 왈가왈부 소란한 파국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아마도 호메이니의 理念路線인 反시온주의, 反공산주의, 反자본주의라는 복잡미묘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면서도 그러한 이념을 일탈하거나 變調시키려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날이야 누가 알리마는, 어쨌든 오늘의 이슬람共和國을 革命(4천명피살)로 創出해낸 것은 무엇보다도 “순수-正統”回教精神(*正統論爭은 뒤의 시리즈로 예정)임에



◇ 이란의 펄세폴리스 유적...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됨.
이곳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건설한 제국 수도이었다.

틀림없으므로 그러한 精神力을 갈고 닦아 온 호메이니翁을 일별한 다음, 때에 맞추어 苦痛에 찬 이란人들의 歷史的인 怨恨想起 儀式을 보자.

호메이니는 지금 위독하거나 余命이 몇개월 남지 않았다는 說이 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 최고혁명위원회는 이란國家元首 및 지도체제에 관한 法規도 수정했다는 정보가 흐른다. 즉 호메이니는 최고종교지도자인 벨라야트·파기흐(Velayat Faghih) 職에 初代이자 終身職으로 추대된 바 있는데, 이는 어떤 일에도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는 獨占權力이므로 이 職權이 후계자 관계로 修正된 듯도 하다.

그는 1900년에 神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깊은 信仰心으로 두각을 나타내 30세부터 神學校교수가 되었다. 그후 1963년 팔레비王에게 쫓겨날 때까지 聖都 콤市에서 13,000명의 弟子를 가르쳤는데 그중에는 현재 公式후계자로 指名된 몬타제리, 국회의장점 총사령관인 라프산자니, 현대통령 하메네이등 회교혁명정부의 3巨頭가 모두 포함된다. 이란駐在 외교관들은 實權者 라프산자니議長에게 호메이니가 終戰에 관한 全權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그가 후계자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호메이니의 팔레비王朝에 대한 항거는 2대제였다. 그의 아버

지 무스타파도 성직자로서 일찌기 팔레비王의 부친인 前王 레자·한王에게 對立하다가 피살된 것이다. 호메이니는 1963년에 체결된 美國·이란協定 가운데 治外法權조항이 主權侵害라고 주장하며 土地改革의 「白色革命」에 항거하는 反體制運動을 펴다가 (* 민중봉기에서 1,500名이 숨짐) 國外로 추방되었다. 그는 이라크에 들어가 教友인 시아派의 순례도시 나자프市를 거점으로 녹음테이프와 전단등을 통해 反팔레비活動을 14년간이나 전개했다.

그러나 팔레비王은 이 운동을 분쇄하려고 1977년 이라크의 사담·후세인大統領과 밀약을 함으로써 호메이니는 이라크를 쫓겨나 프랑스 파리에서 제2의 망명생활을 하다가 1979年初 回教革命의 이란으로 돌아와 지도자로 추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反팔레비 感情은 정치이데올로기나 宗派主張과 함께 깊은 연원이 있다. 또한 14년간이나 이라크에 체재하면서 시아派를 이끌었던 관계로 이라크內 시아派 무슬림(=모슬렘: 회교도)에 대한 종교적 說得力이 多大한 까닭에, 이라크의 순니派 후세인大統領에 대한 시아派들의 충성심이 미약해지고, 이란回教革命의 물결이 후세인 이라크大統領에게는 파급·확산의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계속>

* 다음 10月號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이란의 모하람(Moharram)통곡의식과 이라크의 中東에서의 位相, 建國史등을 산책해본다.